



한국양계 TS(주)

2006 하이라인 부화장 정기모임 개최



지난 4월 5일 하이라인 부화장의 생산책임자들이 경기도 이천 설봉호텔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시장현황, 호주 하이라인 GPS 농장 방문 보고회, 부화장 시설의 개발 현황 등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다.

시장현황에서는 앞으로 생산되는 계란은 6개월간 잔알이 부족하며 초생주 생산은 5월 이후 3개월간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았다. 강제환우계가 많아 전국적인 산란계 수수 증가, 산란사료증가, 왕특란 증가를 보이나 생산성은 감소하고 난

질은 저하될 것이며 부활절 이후 노계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노계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호주 하이라인 브라운 GPS 농장을 방문하고 온 한양부화장의 김호섭 사장, 김운호 이사의 보고에서 호주의 하이라인브라운 종계는 1일령부터 암수 병아리를 합사, 사육하여 초산기 수정율 향상에 도움이 되며 06시부터 계속 집란하므로 파란, 오란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종계 육추사료는 크럼블 사료사용, 살모넬라 예방제 살킬, 살컵 등의 제제를 사료에 혼합투여, 살모넬라오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산란종계사 점등 광도가 20룩스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자동부화기인데도 모두 수동 점검 기록을 아울러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부화장 시설의 개발 현황과 기타 하이라인 초생주의 품질향상을 위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흥성사료공업

'가금류 감마지방산 강화 위한 사료' 특허 획득

흥성사료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정태원)가 육계계열화 주체인 (주)마니커(대표이사 한형석) 및 강원대학교 박병성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가금류의 감마지방산 강화를 위한 사료조성물' 연구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인체 생리활성에 필수적인 감마리놀렌산은 축산식품에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모유에는 1리터당 30~60mg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체내 생체 조절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E1을 만들어내는 필수 지방산으로 체내합성이 불가능해

식품으로만 섭취가 가능하다.

감마리놀렌산의 효과는 아토피성피부염을 예방하고, 혈액 내 저밀도 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며, 여성의 생리통을 완화하는 효과 이외에도 피부 노화방지 및 골다공증 예방효과 등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이번 특허 획득으로 인해 축산식품에는 거의 함유돼 있지 않은 감마리놀렌산을 향후 닭고기, 계란 등 축산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국내 축산물 소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흥성사료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지난 2년간 산·학이 각각의 장점을 활용해 만들어낸 결실로, 감마지방산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동시에 닭고기 특유의 냄새를 없애고 육질을 차별화시킨 것”이라며 “웰빙시대를 맞아 기능성 제품의 전형을 제시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오바이오(주)

닭터·M 서비스 Launching 및 사업 비전 설명회

네오바이오(주)(대표 유종철)는 지난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SK텔레콤의 후원을 받아 본회 최준구 회장의 기념축사를 시작으로 닭터·M 서비스 Launching 및 사업비전 설명회를 가졌다.

닭터·M은 휴대폰으로 닭의 상태는 물론 전문소견까지 바로 점검하며, 체계적인 사양관리 구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양계인을 위한 종합 지식기반 휴대폰 서비스로서 올바른 표



준사양관리를 제시하며 돌발적인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양계전문 정보, 시세, 경쟁력 비교, 질병동향 등을 제공한다. 입력 날짜에 따라 입추부터 출하까지의 관리법을 매일 자동으로 보내는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40만명의 양계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모든 양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가 기대되고 있다.

신규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



▲ 임경호 씨



▲ 홍보영 씨

동사는 신규사업의 확장으로 신규직원 및 경력직원을 채용했다. Parm 사업부의 경기도 지역 소장으로 임경호씨를 채용했다.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주)코미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P&C연구소 소속으로 수습사원 홍보영씨를 채용했다. 임경호씨는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직원이다.

(주)우성사료

천안연암대 축산 장학금 전달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4월 4일 천안연암대에 축산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축산발전에 기여가 기대되는 축산계열 김문기 학생을 비롯한 10명에게 총 5,000,000원 수여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후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우성사료는 2005년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명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우성사료 김성문 상무이사는 인사말에서 축산의 밑거름이 될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업에 더욱 정진할 것과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산·학계간 협력체제를 이루어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등 축산발전을 위해 더욱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주)다르마

사무실 이전

축산기자재 전문업체인 (주)다르마(대표이사 조형환)가 지난 4월 17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동사는 창업 10주년을 맞아 사세확장에 따라 고객

들을 위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신축 이전하게 되었다. 이전 주소 및 변경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주소 : 전북 익산시 금강동 1127-6
 대표전화 : 1544-3348
 전화 : 063)841-5752~4
 팩스 : 063)841-5962

아디씨오 코리아

사료기술세미나 개최



사료첨가제 전문업체인 아디씨오 코리아(대표 김광섭)가 지난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크리스탈홀에서 '사료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주제로는 Dr. Y. G. Liu가 자사에서 개발한 Rovabio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실험결과를 건국대학교 김창원 교수가 통역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김유용 교수가 항생제 남용에 따른 해결책으로 '동물사료에서 효소제의 중요성'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액상메티오닌과 분말메티오닌의 효능차이 및 사료원료 분석기기 등이 발표되었다.

이날 주된 내용으로는 가축이 사료 섭취시 생체내에서 일부 흡수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소제를 첨가하여 사료이용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자사에서 개발된 제품들의 소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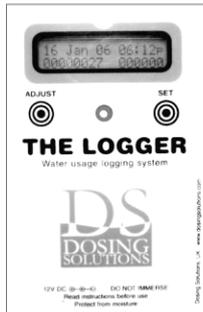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가금분야에서는 가금류의 소화기관 구조가 간단한 편으로 소화기관 내에서 짧은 시간만 머물게 돼 분변상에서 소화되지 못한 사료들이 그대로 배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김유용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사료첨가용 효소제의 사용은 항영양성 인자를 파괴하여 영양소 이용율을 높이는 것으로 원활한 소화를 위해 효소제의 첨가가 필요하며 첨가시 온도, pH, 기질의 농도 등 적합한 환경을 제공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스림 컨설팅

신제품 출시 및 홈페이지 오픈

가축 방역 장비 및 백신 접종장비 전문 업체인 다스림 컨설팅은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음수량 측정기록저장장치인 '로거'는 영국의 도싱 솔루션사에서 개발하였으며, 기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에 측정된 음수량을 기록·저장할 수 있다. 음수량은 1분 단위에서 24시간(1일)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기록은 컴퓨터에 옮길 수가 있고 그래프 등도 그릴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가축의 음수량 추이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가축의 건강상태, 사료 성분의 조성변화, 가축의 스트레스 여부, 급수 시스템 상태 등을 점검할 수가 있다. 동시에 홈페이지(www.dasrim.com) 오픈을 통해 제품에



에 대한 정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으며, 가축 방역과 관련한 기술 정보들을 제공한다. 또한 양계, 양돈 분야의 전문 수의사가 가축 질병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CJ사료

중국법인 천진사료 준공식



씨제이(CJ)사료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국사료사업 진출 4년만인 2006년 4월 8일 중국에서 7번째 공장인 천진씨제이사료가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준공식에는 씨제이사료 이병하 본부장외 중국내 주요인사 그리고 대리상과 축산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씨제이 사료의 국내 명성과 세계화를 다시 한번 입증 하는 자리였다. 천진씨제이는 중국내 중심인 베이징을 포함한 2,000여개의 많은 사료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에서 작년 6월 후발업체로 출발 씨제이 청도공장에서 사료를 공급 받아 양돈사료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11월에는 추가로 낙농사료를 판매함에 따라 시장의 정상적인 진입에 성공 하였다.

하북성의 사료 대리점은 동북과는 달리 규모가 작고 여러 회사의 복수 거래를 함으로서 거래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가격 등으로 중국 내 기술 판매가 가장 요구되는 시장이다.